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국민들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 성공이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다.

어원은 우두마육(牛頭馬肉)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5대 중 한 나라였던 제나라 임금인 영공(靈公). 남장여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하게 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금지했다.

이를 본 제나라의 명제상인 안영(晏孺, 안평중 또는 안자)이 '문에는 소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형상이라고 비교해서 생겨난 말이다.'

제나라 임금 3명을 섬기면서도 수많은 간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당시 외교의 달인이었고 충신이었다. 특히 임금을 살리기 위한 이도살삼사(二桃殺三士)는 유명한 일화다. 박승아 두개로 임금까지 조롱할 정도로 세력이 커져 안하

무인적인 세 명의 장수를 죽였다는 뜻이다.

그만큼 상환판단이 빠르고 지혜로운 위인이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 양두구육이 회자되고 있다. 그것도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그런데 이런 말을 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얼마나 요사스런 말로 국민들을 헐뜯고 무시했던가. 주어가 없다는 궤변으로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때는 대변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으로 편리한 사람이다.

역대 군사정권을 비롯한 보수정권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

권10년. 수많은 적폐를 남겼잖는가.

그래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의 거대 야당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때의 수혜자들이다. 그들의 뿌리가 워낙 넓고 깊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 악습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만 바른 상태에서 악전고투를 할 수밖에 없잖은가. 관계도, 경제계도, 기타 다른 곳에서도 말이다. 국회의석수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절대적이다.

때문에 개혁입법을 아무리 만드려고 해도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백악이 무효다. 이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고 실천에 옮기려 해도 역부족이다. 거

대한 조작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말이다.

과거의 독재정권하에서는 말한자리 못하고 발발거리던 족속들이 민주정부에서 풀어나가 못된 주권부터 찾으려고 난리들이다. 막하 문재인 정부가 할 일들은 태산처럼 널려 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기도 모른다.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큰일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못하고 물러나도 하더라도 그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면 마는 것이다. 강력한 피해자는 누구일까. 바로 대다수 국민들이다. 힘없는 민초들이란 말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맡겨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내년도에도, 그 이후에도, 이 나라의 피란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괴를 마시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의 부인 이순자 여사. 이를 두고 논쟁 한마디 없는 자유한국당. 이 양자의 차이는 뭘까. 곰곰이 되씹어 보자.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잖은가. 이것만 보여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문재인과 그 일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社說

건설현장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니 기대가 크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대상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 필요성을 높일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중 부실시공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공사 중지 명령이 발령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

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공사중지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 중 어느 한 개 항목이라도 지적받을 경우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안전 시공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전문가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높이 31m 이상 비계(가설 발판),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5개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과 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가설 구조물도 포함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건설제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信 信 使 使 可 可 覆 覆
신 信 使 使 可 可 覆 覆
▷ 뜻: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眞理)이고, 또한 남과의 약속(約束)은 지켜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방심은 금물! 학교폭력에 방학이란 없다

모든 학생들이 고대하던 겨울방학이 접어들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방학을 함으로써 등교를 하지 않기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에는 방학이란 없다.

요즘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방학기간에도 학교폭력의 일종인 사이버불링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로 모

바일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없고 시간공간의 제약도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사이버불링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2년 90건에서 2018년에는 2122건까지 증가했다.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사례로 16살 A양이 개학을 하루 앞두고 한 상가 4층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A양은 학교 선배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집단 괴롭힘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학생들에게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대의 학교폭력 특성을 감안해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학교 학교전담경찰관들의 관찰 및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평소와 행동이 다르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이버 폭력의 피해 및 가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피해 학생 대부분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에서 사이버 폭력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신고는 '117', 문자 신고는 '#1388', '#0117'로 하면 된다.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 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가정, 학교 경찰 모두 협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녀 울바르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준우 / 나주 빛가람파출소 순경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